

“무카이시마”방적 - 직물용 장식사를

여성 “아우터”용 소재로 공급

히로시마(廣島)현에 있는 “무카이시마(何島)”방적은 장식사(fancy yarn)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순면 슬럽(slub)사를 니트시장뿐만 아니라 직물시장에도 판매하기로 하였다. “무카이시마”방적은 그 동안 주로 슬럽사를 양말용이나 여성 “아우터(outer)”용 소재로 판매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슬럽이긴 중변수실을 직물용으로 진즈, 여성용 팬츠(pants)소재로 구입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무카이시마”방적은 정방기 2만추로 월생산은 330t 규모이며 면, 폴리에스터, 텐셀, 락트론 등과 같이 아크릴 이외의 혼방소재를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다. 생산품종으로는 정수필터(淨水filter)의 소재로 사용되는 조사(roving)정도 굵기의 롤링얀(rolling yarn) 0.5수 단사로부터 특수사 30수 단사까지 생산하고 있다. 이들 소재의 용도도 광범위하며 가방소재용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무카이시마”방적은 2000년 4월에, 관련 섬유원료 도매상의 파산으로 경영난에 빠진 일이 있지만, 오래 전부터 거래해 온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를 잘 살려 순조롭게 복구되고 있다.

앞으로도 매사(賣絲)를 영업의 주축으로 하되,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